
저자 (Authors)	서재극
출처 (Source)	한국학논집 4 , 1976.03, 775-782(8 pages) Keimyung Korean Studies Journal 4 , 1976.03, 775-782(8 pages)
발행처 (Publisher)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Academia Korean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10756
APA Style	서재극 (1976). 鄉歌 포기에 쓰인 釋讀字. 한국학논집, 4, 775-78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9 16:4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鄉歌 표기에 쓰인 釋讀字

서 재 극

I. 들머리말

II. 漢字새김의 보수성

III. 鄉歌의 釋讀字

IV. ‘尸’의 釋讀 可能性

I. 들머리말

한국어의 역사적 연구는 古代 국어의 대표적 자료인 鄉歌를 빼놓고 이루어질 수는 없다. 鄉歌에 대한 연구는 이미 반세기 이상의 연륜을 간직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미해결의 과제를 안고 있음이 사실이다. 古代 漢字音의 연구문제는 물론이고, 漢字의 새김(訓釋)에 대한 연구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고는 이 漢字의 새김에 관련하여 鄉歌에 쓰인 釋讀字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본론에 앞서 먼저 鄉歌의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고 들어가기로 한다. ‘鄉歌’류의 명칭은 ‘鄉風體歌’(玄化寺碑陰記), ‘鄉歌’(均如傳, 三國史記, 三國遺事), ‘鄉謠’(均如傳) 등으로 쓰였는데, 이것을 굳이 ‘詞腦歌’라고 해야 한다는 것은 재고할 문제라 하겠다. 梁柱東박사는 朝鮮古歌研究에서 ‘鄉歌’란 “鄉言, 鄉人, 鄉樂, 鄉藥” 등 “自己 貶視의 中世時俗觀念이 濃厚한 말”로 다루어, 鄉歌라고 하기보다는 ‘詞腦歌’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鄉’은 어디까지나 ‘제 바닥 고장’의 뜻으로 일관된 말이었다고 본다. ‘상놈<鄉놈, 상말<鄉말’ 등 ‘시골’관념이 짙은 뒷시대의 개념을 곁들여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詞腦歌’(均如傳, 三國遺事, 玄化寺碑陰記)라는 말의 ‘詞腦’가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하겠고, 이것이 ‘兜率歌’와 어떤 관계가 있는 말인가가 좀더 납득이 가도록 상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三國遺事(권1, 第三駕禮王)에는 朴弩禮尼叱今一作儒禮王(儒理王 誤)(중략)改定六部號 仍賜六姓 始作兜率歌 有嗟辭 詞腦格”이라고 했으나, 뒤에 이 ‘詞腦’의 말뜻은 均如傳에서부터 잘못 인식된 듯하다. “十一首之鄉歌 詞淸句麗 其爲作也 號稱詞腦(崔行歸)”는 그런 혐의를 덜 받겠지만, “師之外學 閑於詞腦 意精於詞故云腦也(赫連挺)”는 해석자의 편의한 대로의 뜻매김이라

하겠다.

‘兜率歌’의 ‘兜率’은 ‘*두(廣韻：當候切)’와 ‘*술(廣韻：所率切(又所類切))’로 音借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술’은 아마도 ‘句節聲’이라는 뜻이 아니었던가 한다. 新字典(新文館)에는 ‘句’를 새김하여 “章句 文詞止處 句絶。모。드。로”라고 했고, ‘讀(두)’를 “句讀 文語絶處 句絶。로”라고 했다. 文世榮 국어대사전 또한 ‘드’를 ‘시귀(詩句)의 옛말’이라 하고 있다. 이들 두 책은 오래 전에 死語化한 낱말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특히 字典類의 경우는 새김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지금은 알 수 없는 낱말을 일지라도 그대로 새김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요, 통례이다. 大明律直解(跋文)의 “薛聰所製方言文字 謂之吏道”와 世宗實錄(崔萬理 上疏)의 “新羅薛聰吏讀” 내지 同實錄(訓民正音序) “昔新羅薛聰 始作吏讀” 등에 있어서의 ‘道·讀’가 훗날 ‘吏頭, 吏吐, 吏套’의 ‘頭·吐·套’들과 함께 국어의 ‘마디(節)’를 뜻하는 ‘드·로·兜’에 해당하는 取音字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 중 ‘讀(두)’는 소리와 뜻이 한목 고려된 나머지 ‘吏讀’라고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군두목’(취음자 軍都目·群都目)의 접미사 ‘목’은 ‘關·節·項’의 뜻을 가진 原辭 ‘두’를 더욱 분명히 하려는 데서 첨가된 말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ti/tu/tʰo(tʰu, to) 등의 한 單語族을 예상하게 하므로 ‘章句’ 또는 ‘節’로서의 ‘드·로’와 ‘兜率歌’의 ‘兜(두)’가 동계어일 가능성은 매우 짙은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率’은 중세어 ‘소리, 소위, 소리’(聲)의 접미사 ‘-이, -의, -이’ 등이 아직 결합되지 아니한 상태로서의 ‘*술(聲)’로 보려는 터이다. 이러한 추측은 현대 방언(영남지방) ‘소래기’(聲)의 ‘-애기’에서 더욱 암시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兜率歌’는 ‘두술노래’ 즉 ‘귀절귀절로 엮어진 소리’라는 것이 原語의 위치에 있고, ‘歌’는 그러한 ‘노래’이다라고 漢字로써 말뜻을 한계지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앞에 든 三國遺事의 대목 중 ‘有嗟辭詞腦格’은 이러한 ‘귀절노래’로서의 격식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여기의 ‘嗟辭’는 저 중국의 楚辭에서 볼 수 있는 ‘亂辭’ 곧 ‘亂曰’로 후렴하는 따위——그 뒤 ‘重曰’ 혹은 ‘辭曰, 反辭, 小歌, 少歌, 倡’ 등으로 쓰이기도 했음. 일본 萬葉集에는 ‘反歌’로 쓰였음——의 감탄어(鄉歌 14首)에서는 “後句, 阿耶, 阿邪也, 阿邪, 阿也” 등으로 쓰였고, 이것이 없는 노래가 6首이다. 均如傳에는 “歎曰, 隔句, 阿耶, 落句, 後句, 後言, 城上人, 打心, 病吟” 등 훨씬 다양하게 쓰였음)와 같은 형식이라고 보려 한다.

여기 ‘詞腦格’의 ‘詞腦’는 “思內一作詩惱樂”(三國史記 권 32)을 비롯한 각종 ‘思內’와

더불어 그 말들의 音相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다. ‘詞腦, 思內, 詩惱’에서는 ‘詞·思·詩’가 韻鏡의 內轉 第8 開口 3等(詩), 4等(詞·思)의 平聲 之韻에 속하는 글자들이며, 모두 齒音字들이다. 그리고, ‘腦·內·惱’는 같은 舌音字로서 ‘內’는 韻鏡의 外轉 第14 合口 1等 隊韻이요, ‘腦(惱)’는 外轉 25 開口 1等 皓韻 소속의 글자다. 이들을 중국 中古音에서 볼 때는 “詞(邪母 zjei), 思(心母 siei), 詩(審母 ʃiei)”며 東音에서 後代에 sA(詞·思) 내지 sI(詩)로 정착되었고, “腦·惱(泥母 nau) 및 內(泥母 nuai)”는 noj(腦·惱) 내지 naJ(內)로 각각 정착되었다. 兜率歌를 부르던 당시의 이들의 音相이 東音에 어떻게 실현되었던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으나. 어림잡아 *sInoj~*sInAj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된 것이라 가정한다면, 우리는 이 ‘詞腦格’이라는 말에 대해 종래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종래의 학설은 三國遺事(권1)의 “東泉寺在詞腦野北”이라는 데서 이 ‘詞腦’를 ‘東土’로 해석하고, ‘東土’는 곧, ‘思內, 詩惱, 詩腦’들과 더불어 ‘徐耶伐, 斯羅, 斯盧, 新羅’(三國史記 권 34)로 표기된 지시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이 ‘詞腦格’이란 말도 ‘新羅格’으로 보아야 하고, ‘鄉歌’도 ‘詞腦歌’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詞腦, 思內, 詩惱, 詩腦’ 계열의 표음 형식과 ‘徐耶, 斯羅, 斯盧, 新羅’의 표음과를 대조해 볼 때 전자와 후자 사이에서 현저히 다른 점을 보게 된다. 즉 전자는 제2음절에 泥母字만을 배치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는 來母字를 많이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들의 지시하는 바가 똑같다 하더라도 일단은 표음 형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음 형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지시하는 바의 내용도 그만큼 다르다고 보는 것이 순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借字에 있어서도 전자와 후자 사이에 현격한 상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첫 글자를 ‘말(詞), 생각(思), 글(詩)’들을 배치하고, 다음 글자를 ‘머릿골·머릿속(腦), 속·안(內), 속으로·괴로와함(惱)’과 같은 자를 배치하였다. 이에 비해서 후자는 비교적 표음 일변도의 排字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중국의 전통적인 反切字에는 ‘詩, 思, 徐, 內, 盧’가 쓰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앞 글자와 뒷 글자와의 연결에서 가질 수 있는 表意性 즉 표의화 표기의 면도 전혀 도의시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어림뜻이나마 느끼게 된다. 雞林類事에서 중세어 ‘슈룹(雨傘)’에 해당되는 말을 ‘傘曰聚笠’이라고 표기한 따위는 그 대표적인 예다. 차라리 ‘斯羅, 斯盧, 新羅’ 따위는 ‘土’를 뜻하는 솔롱어 širuktaā, 골디어 siru, 몽고어 siroi, 만주어 siru'ai, 토이기어 soil, 訓蒙字會에서의 ‘시라손(土豹)’의 ‘시라’ 등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편이 낫겠다. ‘詞腦野’의 ‘詞腦’는 ‘식’와 ‘뇌’의 合成인 ‘東北

이나 ‘新耕(耕地)’으로 생각하려 한다. 따라서 ‘詞腦野’는 ‘東北野’이거나 ‘新耕野’이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여기의 ‘詞腦·思內·詩惱(腦)’는 모두 ‘새로 되풀이’한다는 말인 듯하다. 이 중 앞 글자들은 중세어 ‘쇠아비, 쇠어미’에서 보는 ‘쇠’(후대의 ‘妮’는 取音字)와 동계인 듯이 보인다. ‘쇠아비, 쇠어미’의 어원은 ‘씨(種)’와는 무관계하다. 오히려 ‘새(新)’ 쪽이다. 경상도에서는 사돈쪽(지방)을 가리켜 ‘새곳’이라고 일컫는다. ‘쇠/새’는 모음의 대립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대어의 ‘쇠스럽다’(수줍다)는 말의 ‘쇠’도 같은 데투리 안에서 생각되어질 말이라 본다. 咸鏡道 방언의 ‘스느비’(시누이)나 ‘시아기’(새아기), 또는 공통어의 ‘시앗(妾)’[근대어는 ‘쇠앗’. 앓=小妻<弟] 같은 말들의 ‘스/쇠/시’는 모두 ‘새(新)’와 관계있는 것들이다.

다음 뒷 글자들은 중세어 ‘늑외다(反復)’, ‘늑외(更)’와 관련시켜 생각하고자 한다. 鄉歌 願往生歌의 “無量壽佛前乃 惱叱古音(鄉言云報言也)”이라는 대문이 있는데, 이 때의 惱叱古音의 ‘惱’가 ‘거듭 이르다’의 어간 즉 현대어 ‘뇌다’의 어간 ‘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 협주의 ‘報言’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취한다면 ‘復命하는 말’ 또는 ‘復命하-’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렇게 보아 ‘惱叱古音’을 ‘넛곰’[<늑외넛곰<늑외시곰<늑외이시곰] 내지 ‘넛웃곰’ 정도의 표음으로 가정할 때, 이 ‘詞腦’계의 ‘腦·惱·內’도 현대어 ‘뇌다’에서 그 잔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뇌다’의 말뜻을 좀더 상세히 상고해 보면 두 가지로 갈라져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더 보드랍게 하려고 굵은 체에 찢 가루를 가는 체에 다시 찢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잘 알아듣도록 하려고, 한 말을 여러번 거듭한다”는 말이다. 전자는 지금 安東지방에서 ‘나웬다’(“더 많은 가루를 내려고, 가는 체에 찢 것을 굵은 체에 다시 찢다. 체질한다”)라고 한다. 후자는 공통어에서 흔히 접두사를 붙여 ‘되뇌다’고들 하고 있고, ‘뇌까린다’는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詞·思·詩’를 ‘새로(新·更)’라는 ‘쇠’로 보고, ‘腦·內·惱’를 ‘뇌-(重言)’라는 ‘늑외, 뇌’로 보아 ‘詞腦格’을 ‘쇠늑외格, 쇠뇌格, 시뇌格’ 정도의 표기라고 본다면 이는 곧 ‘되뇌는格’이라는 내용을 가진 말로 해석이 되고, 이 ‘되뇌는格, 되뇌는格’은 앞에서 말한 바 있는 ‘後句, 阿耶...’ 이하의 이른바 ‘反辭, 小歌, 反歌’의 내용을 가진 格式을 뜻한다고 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三國遺事의 ‘始作兜率歌 有嗟辭詞腦格’의 ‘嗟辭’는 그 노래의 끝 부분에서 발하는 ‘阿耶’나 ‘亂曰’이니 하는 감탄어이고, ‘詞腦格’은 이 감탄어에 뒤이어 나는 마무리 단계의 후렴귀절로서, 노래 내용의 줄가리를 요약해서 한 번 되풀이하는 格式이라는 말로 받아들여질 성질의 것이 된다. ‘詞·思·詩’ 등

音借字의 표의화 擇字도 ‘노랫말’의 반복되는 뜻으로 보면 여기에 크게 관여하는 것이라 보아진다.

이상으로 ‘兜率歌’를 ‘*두솔歌’, ‘詞腦格’을 ‘*쇠뇌格’으로 보고, 그것들이 각각 “여러 마디로 짜여진 소리로서의 노래”이며 그 노래는 “되뇌는 格”을 가진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詞腦歌는 鄉歌의 한 하위 개념으로 규정되는 동시에, 三國遺事에 실린 鄉歌는 後句가 있든가 또는 ‘後句亡’이라고 적힌 노래에 한해서 詞腦歌라고 일컬어질 수 있고, 그 밖의 것은 詞腦歌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II. 漢字 새김의 保守性

필자가 조사한 百聯抄解의 새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톨(未)’과 ‘여즈막(片)’, ‘잔더울(涼)’ 등이었다. 이 ‘아톨’의 발골 이후 雜林類事的 ‘少曰亞退’를 쉽게 풀이할 수 있게 되었다. 百聯抄解에 못지않게 낡은 字새김을 지니고 있는 것은 光州관 千字文이다. 이것 역시 16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는 鄉歌의 釋讀字와 깊은 관계를 가진 말들이 꽤 있었다. 먼저 ‘안등(靡), 안득(非), 안득(不)’ 따위를 들 수 있다. 鄉札 및 吏讀語로 ‘不冬, 不得, 不諭’들이 쓰였은즉 이들 새김은 매우 고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알(良), 직(可), 바라(處)’ 따위는 鄉歌의 音釋讀 판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말들이다. 漢字의 새김이 이처럼 고어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거니와, 이러한 작업 없이 鄉歌를 연구하려는 안이한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고, 안이한 방법으로 이룩된 업적은 한갓 헛된 결론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新字典의 새김(필자 조사)들도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국어 어휘사 재구에 많은 보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鄉歌의 釋讀字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디까지든, 혹은 무슨 字를 音讀하고 釋讀하느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鄉札 자체의 표기 방식이 그 나름으로 있었던 듯하다. 釋讀字는 일반적으로 어두(또는 문두)에 놓이며, 몇몇 자는 어미(어말)에 관용되기도 했다. — 去(가), 立(셔), 如(다), 是(이), 中(히), 置(두), 如(곤). 한편 音讀字는 그 배치가 비교적 자유스럽다. 대체로 낱말의 기능부 구실을 하는 것이나, 때로는

어두에서 어말까지 일관되기도 한다. 釋讀字의 배치가 폐쇄적이라면 音讀字의 그것은 개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연구자에 따라서 해독법이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있되, 정당히 釋讀될 것이 誤字 관정을 받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한 예로 風謠의 끝 귀절 ‘功德修叱如良來如’의 ‘如’자를 ‘加’자의 잘못이라고 임의로 수정하는 따위다. ‘如’의 뜻(새김) 가운데는 ‘그릴’이 있다. 이 ‘그릴(그러할)’의 어근 ‘그러-’ 또는 ‘글-’에 부사형(구체적으론 목적형) ‘良(아)’가 합쳐져서 ‘닷그라’(修叱如良)로 되는 것을 관독하지 못하는 예가 그것이다.

Ⅳ. ‘尸’의 釋讀 可能性

鄉歌 14首에는 다음과 같이 ‘尸’자가 많이 쓰였다.

哭屋尸(우를),	廻於尸(돌을),	慕理尸(그릴),
愛賜尸(드스실),	爲賜尸(ㅎ실),	愛尸(드술),
爲尸(홀),	爲內尸(ㅎ닐),	毛冬乃乎尸(모돌노을),
-白屋尸(一술불),	遺知支賜尸(기티히실),	用屋尸(쓸),
行乎尸(너을),	宿尸(잘),	浮良落尸(떠라딜),
見賜烏尸(보시을),	一將來尸(바돌),	掃尸(쓸),
行尸(널),	還於尸(돌을),	好尸(도홀),
道尸(길)(2회),	二尸(두불),	東尸(셀),
秋察尸(마술).		

용언의 동명사의 어말음과 체언의 어말음으로 쓰였는데, ‘尸’의 음은 東音에서 자고로 ‘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尸’에 대하여 학자에 따라서는 略字로 보기도 하고, 혹은 중국의 현대 방언음으로나 太古音계의 어두 복자음 *sl-의 한쪽 실현일 것으로 추정된 바도 있다. 필자는 이를 ‘*쓸(偃舒)’이라고 釋讀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釋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康熙字典에 따르면 ‘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又神象也 古者祭祀皆有尸以依神”이라 하고, 詩 大雅의 ‘公尸來燕來寧’에 대한 朱子の 해석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古人於祭祀必立之尸 因祖考遺體 以凝聚祖考之氣 氣與質合則散者庶乎復聚”라고. 新字

典의 설명 또한 “尸童神像시동 古者祭祀皆有尸 以依神以卑幼者爲之 後世始用畫像也”라고 하고 있다. B.Karlgren의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Japanese에서도 ‘尸’를 “corpse, body; sit as representative of dead at sacrifices” 같은 추정을 하고 있다. ‘尸童’이란 옛날에 제사때 神位 대신으로 그 자리에 宗孫(혹은 직계 자손)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를 앉혀 그 祖考(死者)의 형상을 방불케 하려고 했던 데서 생긴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로는 이것을 ‘カタシロ(形代)’라고 하고 있다. 또한 辭海의 설명도 “尸主也 孝子之祭 不見親之形像 心無所繫 立尸而主意焉 一人 主人兄弟：按主人謂孝子 爲尸者 孝子之兄弟也 後世始用畫像而廢尸”와 같이 하고 있음을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古祭에 이런 제도가 있었던가는 아직 들은 바 없으나, 비록 없었다 하더라도 ‘尸’의 새김달만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尸童’이란 한자어 새김을 하고 있지만 古代 혹은 그보다 앞선 上代에서는 순수한 국어로 했을 법도 하다. 필자의 추정으로는 아마 ‘얼’이라는 말로 쓰던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 ‘얼(魂)’은 증세어에서는 文證이 없다. 다만 ‘얼굴’이라는 증세어가 ‘어리(圈)’와 ‘구레(脛)’와의 합성이 아니고, ‘얼’과 ‘꼴’과의 복합이라면 ‘얼(尸)+꼴(증세어 ‘形’)의 母音調和형(얼굴)으로 볼 수도 있겠다.

여기 잠시 증세어 ‘얼굴’의 용례를 들어 보자.

- 얼구른 그리메 逼近紅尼(形像丹青遍<杜초 8 : 25>
- 누 쏘이 얼구를 볼기리오(誰明空質)<楞 3 : 20>
- 저죄 업고 얼굴 늘구물 슬노니(才盡傷形態)<杜초 16 : 18>
- 身 몸신 俗呼一材얼굴<字會 上 12>
- 形 얼굴형 <〃 上 13>, <類合 下 1>
- 狀 얼굴장<〃 上 18>, <類合 上 15>
- 型 얼굴형 鑄器之範<字會 下 7>
- 模 얼굴모一範規一法也<〃>
- 式 얼굴식<〃 下 9>
- 象 얼굴상<類合 下 51>
- 體 얼굴테<〃 上 22>

오늘날 ‘얼굴’을 ‘얼꼴’로 실현하는 수가 많음은 원래 그것이 합성어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오면 ‘늪즈스(瞳)>눈자위(눈거풀)’와 같은 有緣的 意味變化로 볼 수도 있다. 즉 ‘얼(形)>얼(魂)’로 有形에서 無形으로의 의미 변화를 한 것

이라고 보겠다. 그리고, 증세어 ‘어리다(愚)’도 이미 上代부터 假자인 ‘열(尸)’에서 파생된 말이었다고 해도 좋겠다.

여기서 ‘열(尸)’의 釋讀을 지지해 주는 또 한 가지 이유로서, ‘열’이라는 발음이 schwa (ə)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鄉歌에서의 音讀字 ‘乙’에 못지 않은 애매 모호한 母音이기 때문이다. 三國史記 地理志의 地名에서 수많이 쓰인 ‘尸’가 일일이 ‘乙’자로 대응 포기되고 있으면서도 ‘一云’이라는 注書를 붙인 것은 이미 金富軾 시대에 ‘尸’의 원시 訓釋이 지금과 같이 가뭇없이 사라진 탓이 아닌가 한다. 또한 그 뒤의 一然도 三國遺事(권 3) 彌勒仙花 末尸郎 眞慈師 대문에서 “說者曰 未與彌聲相近 尸與力形相類 乃託其近似而相謎也”라고 했음은 ‘尸’의 새김 ‘열’이 안 쓰였기 때문에 ‘ㄹ’소리에 ‘力’자를 부회해서 생각했었다고 보아야 타당하리라.

‘尸’의 東音이 일찍 ‘ㄹ’소리로 시작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로서는 위와 같은 ‘尸’의 釋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釋讀을 함으로써 三國史記의 ‘一云’이라는 所記를 무리 없이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尸’의 해석이 많은 무리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게 된다. 三國史記 地理志의 다음과 같은 몇 예는 ‘尸’의 音讀과 釋讀의 두 차원에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 (1) 嘉瑟岬或作加西岬俗音古尸
- (2) 狼川郡本高句麗狹川郡一云也尸買
- (3) 野城郡本也尸忽郡
- (4) 新復縣本加尸兮縣
- (5) 大山郡本大尸山郡
- (6) 安賢縣本阿尸兮縣一云阿乙兮
- (7) 咸安郡本阿尸良國一云阿那加耶
- (8) 文峴縣一云斤尸波兮
- (9) 管城郡本古尸山郡
- (10) 有隣郡本于尸郡
- (11) 伊山郡本馬尸山郡
- (12) 新良縣本沙尸良縣
- (13) 伊城縣本豆尸伊縣
- (14) 武靈郡本武尸伊郡

본고에서는 鄉歌의 借字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尸字에 대해서 釋讀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치려 한다. 맺음말 생략.